

삶은 달걀과 속임수

달걀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진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준비물

- 껍질을 깨지 않은 날달걀
- 껍질을 깨지 않은 삶은 달걀
- 경전



오늘 아침은 오믈렛이다! 여러분은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채소를 썰다. 프라이팬을 달군다. 그리고 달걀을 깬다. ... 뒤에서 동생이 낄낄거린다.

“너 또 그랬지!” 여러분은 불멘소리를 낸다. 그렇다. 동생이 달걀 몇 개를 삶아서 날달걀 사이에 섞어 둔 것이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다.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만 있었다면! “올바른”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구별하는 것만큼이나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제 실물 공과 시간이다!

할 일

1. 상 위에 달걀을 몇 개 둔다.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적어도 하나씩은 섞어 둔다. 오늘날 세상, 특히 온라인에 존재하는 온갖 거짓 정보들에 대해 가족들과 토론한다.
2. 이번 실물 공과에서는 날달걀이 진리를, 삶은 달걀이 속임수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가족들에게 눈으로만 보고 어떤 게 삶은 달걀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아마 맞히기 어려울 것이다.)

II 잠시 멈추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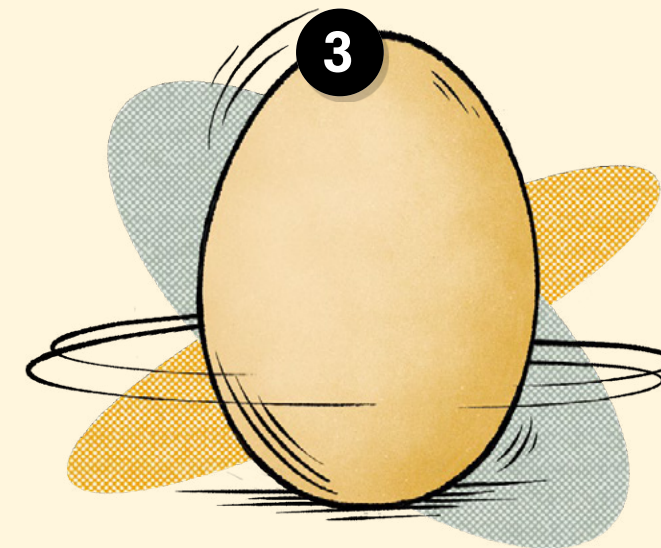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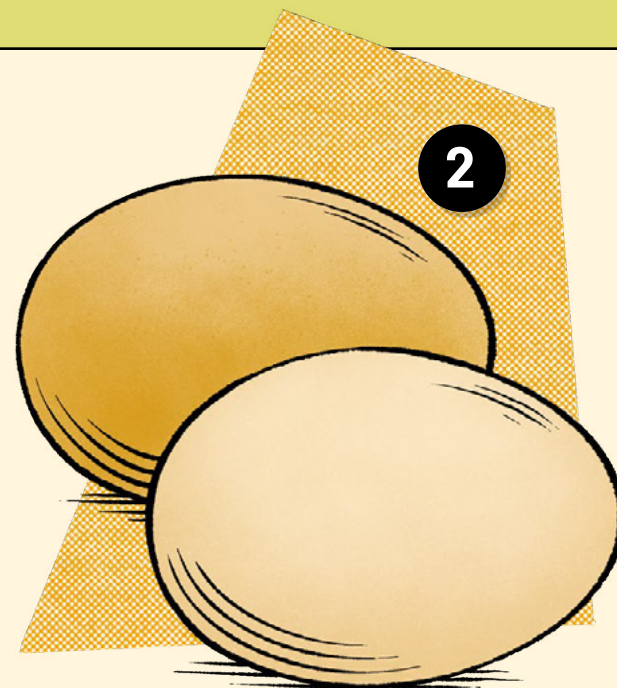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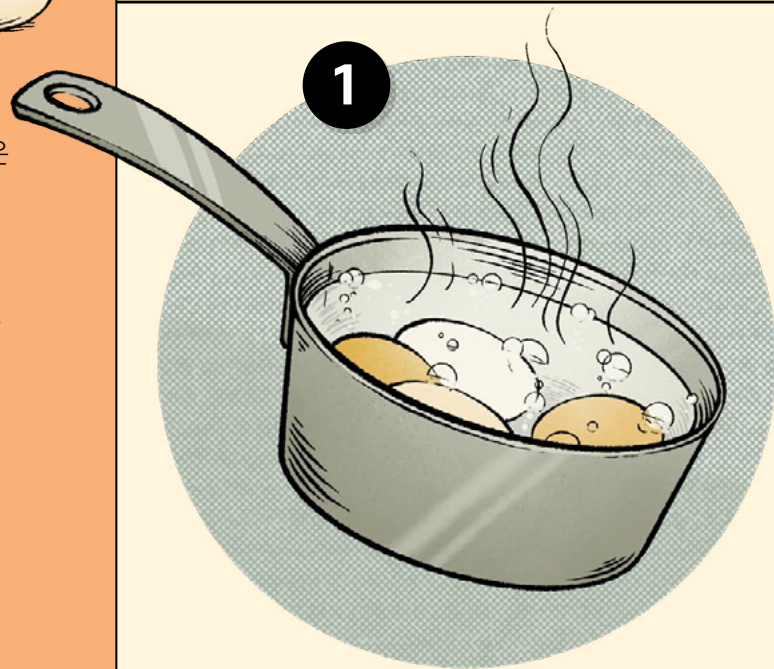
다음 성구와 인용문을 가족과 함께 읽는다. 속임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109:7)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부분의 정보가 소셜 미디어나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해 오는 것이라면, 영의 속삭임을 듣는 여러분의 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흥미롭기는 하지만 참되지 않은 철학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러셀 엠 벨슨,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2021년 10월 연차 대회(“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120쪽)

3. 약간의 지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줄 때다. 달걀들을 하나씩 돌려 본다. 이때 팽이처럼 똑바로 세워서 돌리도록 한다. 날달걀은 그 즉시 넘어지지만, 삶은 달걀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똑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4. 경전, 선지자, 그리고 성신은 우리 삶 전반에 존재하는 속임수들을 알아채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영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야곱서 4:13) 알고, 속임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책”(그리고 가장 좋은 웹사이트, 소식지 등등)에서 학문을 구하도록 해 줄 것이다. 📖



삽화: 데이비드 허핀